

IFS 국가 정책 제언 함께하는 운동, 더 나은 관계: 청소년 사회성 증진을 위한 제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경아 선임연구원



1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

■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

- 청소년기는 개인의 전반적인 성장과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사회성은 청소년기 이후의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초가 되며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침
- 최근 대면 활동 감소와 비대면 소통 및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함*
 -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내 13세 이상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등)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 ‘약간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20년 59.3%에서 2022년 51.0%로 크게 하락
-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보임

■ 사회성 발달 영향 요인

-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 환경, 학교 생활, 교우 관계 및 신체활동 등 다양함. 특히 청소년들이 단체운동을 통해 집단에 잘 적응하고 사회 행동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운동은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적 발달 그리고 인성과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더불어, 국가의 문화적 특징도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Cultural Dimensions Theory)*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강조되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소속감과 협력이 강조되어 사회성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음
 - * 각 사회의 문화가 구성원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수평-수직), 장기-단기 지향성, 불확실성 회피, 성취동기, 관용-절제라는 6가지 차원으로 국가별 문화를 비교 분석

■ 사회성과 단체운동 간 관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15개국 청소년들의 단체운동 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더불어, 단체운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국가 간 사회성의 차이를 문화차원이론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시스템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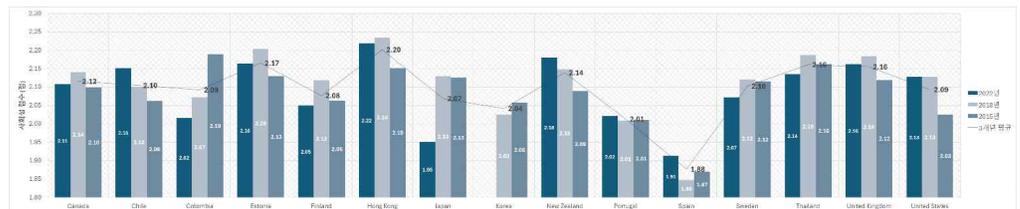


2

단체운동이 청소년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청소년 사회성 수준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통해 만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소속감, 유대감 등의 사회정서역량을 함께 평가함
- 본 연구는 2015년, 2018년 및 2022년의 15개국 청소년들의 개인별 사회정서역량을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평균 리커트 점수(최소: 1점, 최대: 4점)로 수치화함
 - * "I make friends easily at school.", "I feel like I belong at school.", "Other students seem to like me."
- 한국의 사회성 점수는 전체 15개국 중 13위를 차지하며 남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및 일본과 함께 하위권에 머무름. 반면, 북유럽(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북미(미국, 캐나다) 및 남미(칠레, 콜롬비아) 등의 청소년들은 한국 대비 높은 사회성 점수를 보임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성이 저하된 국가는 10개국에 달하며, 이는 팬데믹이 청소년 사회성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줌(2018년 대비 2022년)



[국가별 청소년 사회성 평균 점수]

자료: OECD 연도별 PISA Database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국가별 청소년 단체운동 참여 수준

- AHKGA (Active Healthy Kids Global Alliance)는 Global Matrix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수준, 스포츠 참여 및 가정 환경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항목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함
- 본 연구는 2016년, 2018년 및 2022년의 15개국* 청소년들의 단체 운동 참여율 관련 지표("Organized sport and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의 등급을 수치화**함
 - * 각 연도별 분석 대상국은 38개국(2016년, "Global Matrix 2.0"), 49개국(2018년, "Global Matrix 3.0"), 57개국(2022년, "Global Matrix 4.0")이나, PISA의 분석 대상국과의 일치를 위해 최종적으로 15개국으로 제한함
 - ** A+: 15, A: 14, A-: 13, B+: 12, B: 11, B-: 10, C+: 9, C: 8, C-: 7, D+: 6, D: 5, D-: 4, F: 2



■ 단체운동 참여가 청소년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단체운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체운동이 협력, 의사소통, 팀워크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함. 즉, 청소년기의 협력적 신체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됨
- 더불어, 단체운동 참여율로 설명되지 않은 국가별 사회성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대표되는 남유럽 국가들은 기저범주인 한국 대비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6년 대비 2018년에 사회성 점수가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활동 감소와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해 2022년에는 사회성 점수가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의 단체 운동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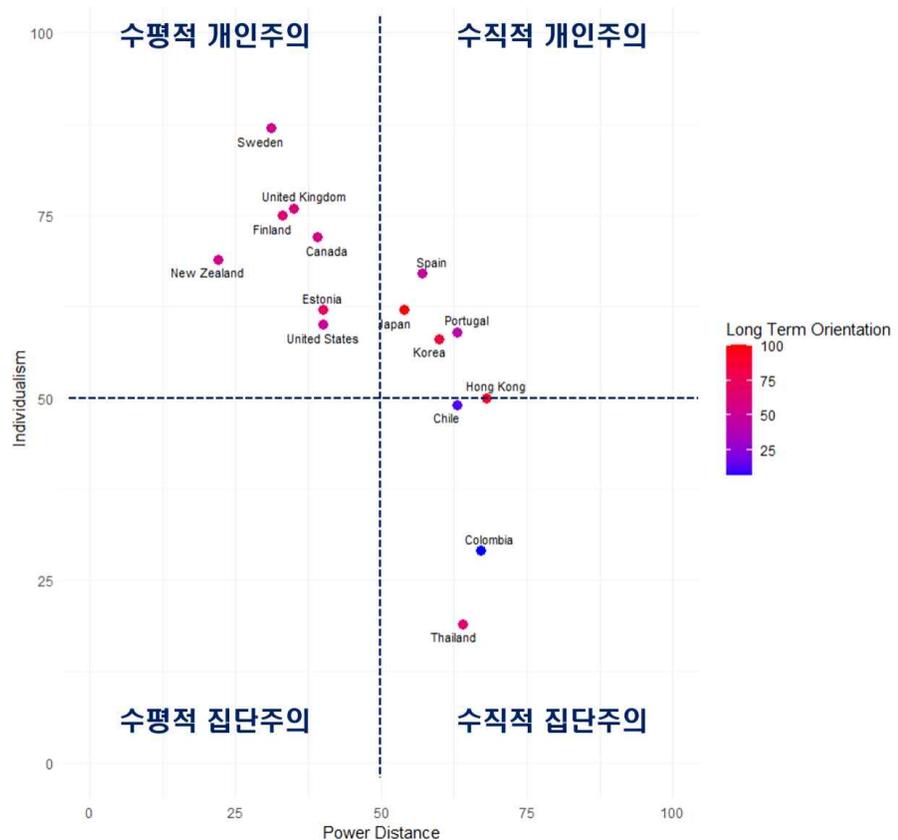
Independent Var.	Coef.	Std. err.	P > t
Physical Activity	0.013 **	0.001	0.000
Country (Baseline: Korea)			
Canada	0.039 **	0.009	0.000
Chile	0.096 **	0.009	0.000
Colombia	0.092 **	0.008	0.000
Estonia	0.115 **	0.008	0.000
Finland	0.029 **	0.008	0.000
Hong Kong (China)	0.161 **	0.008	0.000
Japan	0.028 **	0.008	0.001
New Zealand	0.059 **	0.010	0.000
Portugal	-0.049 **	0.009	0.000
Spain	-0.217 **	0.009	0.000
Sweden	0.020 *	0.011	0.064
Thailand	0.136 **	0.008	0.000
United Kingdom	0.140 **	0.008	0.000
United States	0.044 **	0.009	0.000
Year (Baseline: 2016yr)			
2022yr	0.005	0.003	0.114
2018yr	0.008 **	0.003	0.003
Constant	1.915 **	0.012	0.000

참고: **와 * 표시는 계수 값이 각각 1%,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으로 이해하는 국가별 사회성

- 개인의 사회성(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한 소속감 및 연대감 측면의 사회성)은 한 국가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Hofstede가 제시한 6가지 차원 중 3가지 차원(수평-수직, 집단주의-개인주의, 장기지향-단기지향)에 따른 국가간 문화 차이를 살펴봄
- 우선 수평-수직과 집단주의-개인주의라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한 국가의 문화는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로 분류 가능함
- 이때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평등한 사회(수평적 개인주의) 혹은 사회와 조직 내에서의 계급과 상하 관계가 중요시되며 개인보다는 집단의 조화와 안정이 강조되는 사회(수직적 집단주의)가 개인의 목표와 성공이 중요하지만 특정한 사회적 계층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수직적 개인주의)보다 높은 사회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 여기서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 특성을 지닌 국가들은 다시 한 번 장기지향-단기지향으로 분류 가능하며, 한국과 일본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비 미래를 바라보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내를 중시하는 장기지향적 문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문화차원이론에 따른 국가간 비교]

자료: The Culture Factor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https://www.theculturefactor.com/country-comparison-tool>)



3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시스템 조성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 2023년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참여율*은 35.3%로, 70대 이상의 참여율인 56.5%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고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이와 같은 신체활동 부족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 건강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 이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체육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현행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4시간(33.3%) 늘려 초·중학교 단계의 신체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이 주당 12학점에서 주당 10시간으로 축소되어 학생들의 체력 및 사회성 저하가 우려됨

* 기존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분리

- 더불어,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와 함께 운영 중인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전체 프로그램 수와 상위 10개 종목 중 단체운동 프로그램 수는 각각 33.1%, 12.7%만큼 감소함

- 따라서 고등학교 체육교과 필수이수학점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충분한 교내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평등, 협력,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

- 사회성은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의견을 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문화에서 잘 발달할 수 있음. 특히 권력 관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성취가 강조되면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더욱 약해질 수 있으므로 평등과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함

- 더불어, 즉각적인 성과와 결과를 추구하기보다 청소년들이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장기지향적인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함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종목별 현황]

자료: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https://sat.sportal.or.kr/stats/subject/OutSubjectStat.do>)

